

올바른 건강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健協은 '90년도 언론인초청간담회를 지난 6월 26일 오후 4시부터 전북지부에서 가졌다.

지역주민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언론인과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에는 동아·중앙·한국·전북·전라일보, 서울·한겨레·도민신문 및 MBC, KBS의 기자, 전북 육종진 부지사(건협 전북지부장)를 비롯해 보건사회부, 전북도·본회 관계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날 주제발표로, 보건사회부 송인정 보건교육과장이 “정부 보건교육사업추진 방향”을, 전라북도 주우철 보사국장이 “도민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방안”을, 전북의대 소아과 김정수 교수가 “소아의 성인병”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보건사회부 송인정 보건교육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 의식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90.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개최

『이를 위해 보건교육자료 개발과 요원교육, 홍보활동 강화 등에 힘쓸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 주우철 보사국장은, 『전국민 개보험 실시로 도민 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성인병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건강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수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아의 질병도 점차 영양과다로 인한 비만증 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어릴 때부터의 올바른 생활습관, 건강관리를 통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입시생 건강관리 위한 강좌

인항고교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

健協 인천지부는 고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강좌를 지난 6월 21일 오후 1시부터 인천 인항고등학교에서 실시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법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함으로써 입시생의 건강 관리와 학업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인항고교가 본회에 요청함으로써 실시하게 된 이 강좌에는 학부모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강의는 본회 서기홍 사무국장이 맡았다.

갑상선 기능 검사 실시

健協 서울지부 지난 6월부터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화학 면역 형광 검사기 STRATUS를 구입하고 6월부터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실시해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다.

이 검사기기는 기존의 방사성 면역 측정법에서 진일보하여 방사선 대신 효소나 형광체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질병을 발견해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STRATUS는 갑상선기능검사 외에 혈중 약물 농도 검사, Hormon 이상, IgE (알레르기)검사, 빈혈 Type구별 등에 쓰일 수 있으며, 검사과정이 간편하고 정확한 결과 처리가 가능하여 앞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7월 공개강좌, “위장질환과 암의 조기발견”

오는 7월24일 오후2시부터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7월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부터 홍보관에서 갖는다.

이번 공개강좌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위장질환과 암의 조기발견”·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장질환의 예방과 관리, 그리고 위암의 조기발견에 대한 생생한 정보가 이번 강좌에서 기대된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6월 20일, 6월 공개강좌로 “고혈압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강의를 국립의료원 내과과장 이학중 박사가 실시했다.



보건 교육 자문위 발족

질병의 예방적 측면 강화한 보건교육 사업 위해

보건사회부는 보건교육 시책을 종합 조정하여 올바른 보건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동시에 이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심의하기 위한 보건교육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지난 5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보건사회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이 자문위는 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건강관리, 자료개발, 홍보 등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한편 자문위는 지난 5월 23일 회의에서 본회 고응린 감사(보건협회장)를 위

원장으로, 조영광씨(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회장), 이용수씨(동아일보 과학부장)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보사부의 이번 자문위 발족은 질병양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예방적 측면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는 동시에, 보건교육사업은 정부 시책이나 행정조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들의 적극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 행해진 것이다.

“마약, 국민이 함께 몰아내자”

마약류 퇴치 위한 국민대행진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민대행진 및 기념공연”이 지난 6월 24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일 뿐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스포츠서울과 서울신문의 주최로 열린 이 대회에는 각 정당 대표, 김정수 보사부장관등 정계 주요인사를 비롯해, 체육계·언론계·교육

계 등 사회 각계와 시민 1만여명이 참가했으며, 열띤 호응 속에서 마약없는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본회 직원들도 이날 대행진에 참가해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주인이 될 것을 함께 다짐했다.

● 건협 인사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건강 상담과 건강검진을 보다 원활히 수행키 위해 관리의사 2명을 신규 채용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최 영식(33,임상병리전문의·한양의대)
- 최 문영(27. 여 가톨릭의대)